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17, 고린도전서, 영적 은사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인 고린도전서와 영적 은사에 관한 강의 17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발표할 항목 중 하나는 첫 번째 퀴즈와 시험이 모두 채점되었으며 아마도 두 번째 퀴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블랙보드에 올려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이나 이틀 안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Blackboard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또한 시험과 퀴즈를 다시 받아 실제로 볼 수 있지만 상자에 다시 넣기 전에 Blackboard에 표시됩니다. 그러니 계속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틀 안에 퀴즈와 시험 점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점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고린도전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내의 여러 본문을 살펴보고, 저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배경과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등.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두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하나는 오늘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문을 열자. 아버지, 우리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지탱해 주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모든 능력과 분석 능력, 올바른 질문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의 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주의 만찬, 성찬, 성찬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르곤 했어요.

나는 본문의 그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본문의 끝 부분에 있는 명령에 올 때,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명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야기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동일한 사회 경제적 구별과 지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전체 문제가 엘리트, 부유층, 그리고 부유층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고, 바울을 그토록 화나게 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연합의 빛으로 볼 때, 주의 만찬은 바로 그것, 그것의 표현이어야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지금 다시 교회에 침투해 있는 세속적인 고린도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신분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주의 만찬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살피라는 명령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하고 자백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것은 어떤 죄를 잊어버리고 다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특정 상황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촉진하거나 표현하는 식사를 사용하는 것,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사회 경제적 분열을 촉진하고 영속시키는 방식으로 식사를 사용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살피보아, 즉 당신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똑같은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깨닫고 조사해야 할 주요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논쟁과 분열이 있을 때 주의 만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그토록 화나게 한 주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내 형제자매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즉, 역시 문제는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마도 그들이 일해야 하는 부담이 덜했기 때문일 것이고,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나중에 교회에 도착하여 실제로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교회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다양하고 적은 양의 음식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표현으로 이 식사를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이 식사를 세속적인 고린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구별을 영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대신에 서로 기다리며 함께 이 식사를 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등함을 표현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의 이미지를 통해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12장과 14장에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4장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주요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해 12장 1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입에서 말이나 글로 알려진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할 때 자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이제는 영적인 은사에 관한 것, 이제는 여러분이 쓴 문제에 관한 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관한 것은 바울이 지금 언급할 새로운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둘 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의 맥락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11장과 유사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는 집이나 직장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 그다지 언급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는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마찬가지로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속적인 고린도 사회의 이상이나 가치관을 반영한 문제이고, 지금은 교회에 침투하여 지금의 바울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11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내용의 첫 번째 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교회와 교회의 영적 은사 사용에 관한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미혹되어 미혹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영은 같고 봉사는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고 활동도 다양하지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에는 공동선을 위한 정신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에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에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주시는 동일한 한 성령에 의해 역사되고 활성화됩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선 우리는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앉아서 영적인 은사에 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까? 우선, 나는 이 문맥에 따라 영적인 은사를 성령에 의해 활력을 얻고 전체 교회의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초자연적이거나 자연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되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러한 은사들을 겉으로 보기에 실천하고 받았고 알고 있음을 염려합니다. 학대. 이제 여러분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읽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린도인들은 이러한 지위의 구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슈에서 보아온 사회적 경제적 지위, 후원자와 고객의 관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추종을 요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것 등등. 부유한 엘리트와 서민 사이의 분열. 가난한.

이제 그것은 교회에 침투했고 또한 이와 같은 영적 은사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 중 일부는 엘리트, 사회적 엘리트, 사회의 부유층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자신의 엘리트 부유한 사회적 지위를 그 지위에 어울리는 특정 선물과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로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세기에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아래서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식별할 수 없는 하늘의 고귀한 언어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전에 그 언어를 공부하거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일부 고린도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 즉 초자연적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적 엘리트 지위의 표시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은사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명백히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방언과 같은 현상이 있었던 종교가 고린도교와 기독교만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거나 황홀한 말투로 말함. 흥미롭게도 다른 종교에도 다른 언어나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하는 황홀한 형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른 많은 종교들도 이를 사회적 엘리트 지위와 연관시켰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고린도인들이 아마도 이러한 다양한 이교도 종교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방언, 방언 또는 황홀한 말이 특정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종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 발견한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마도 더 엘리트, 사회적 엘리트, 부유한 회원들이 엘리트 영적, 사회적 지위의 표시로 방언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다른 이교 종교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기독교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풀은 그토록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싸우려고 하는 태도이자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보여주듯이 그가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은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러한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부르는 영어 번역에 주목합니다. 즉, 어떤 은사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령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선물 목록을 보셨나요?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등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단지 방언이 단지 하나의 은사일 뿐 다른 어떤 은사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치유의 기적이든, 신앙이든, 지식을 말하는 능력이든, 모두 동등하게 영을 나타내거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감히 그들이 영적으로 도착했거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표시로 하나의 은사를 분리하거나 높이겠습니까? 이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성령을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그 목록의 또 다른 점은 바울이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 은사를 방언으로 나열했다는 사실을 보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고린도인들이 과도하게 관심을 끌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목록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 뒤에는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이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성령을 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후대나 다른 가능한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성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도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도 일종의 은사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방언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 모든 은사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경쟁의 장을 평준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지시는 더 이상 당신의 영적 지위의 표시로 특정 은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영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신체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그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Paul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세계의 다른 작가들은 통일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회를 육체에 비유했지만 그것이 다양성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그는 12절에서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Paul은 이 신체 이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모든 선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럿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폐가 되지 아니하리라.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는 만약 당신이 하나의 거대한 눈알이나 하나의 거대한 귀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괴할지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의 전체적인 추론은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영역에서도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인들이 하나의 은사를 성령을 소유함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장려하는 것은 몸이 거대한 눈알이나 귀, 발 등으로 구성된 몸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모든 부분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양하지만 화합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그들 중 일부가 영적으로 엘리트이거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지위에 있다는 표시로 방언의 은사를 높이거나 홍보합니까? 사실, 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나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참된 증거는 방언이나 능력이나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 곧 성령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고린도교인들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있다는 표시로 또는 다른 사람이 성령이 없다는 표시로 방언을 높이거나 다른 어떤 은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성령을 나타냅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물질계에서 육체의 작동에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는 한 몸의 작용에 기여합니다.

이제 바울은 12장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끝맺습니다.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가 경기장이 공평하다고 말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성령을 나타냅니다. 왜 이제 바울은 갑자기 교회에게 더 큰 은사를 위해 힘쓰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점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 13장이 언뜻 보면 침입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읽은 그 유명한 사랑의 장, 그리고 나와 내 아내가 결혼식에서 읽었던 13장,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등등, 우리는 종종 그것을 책에서 빼냅니다. 고린도전서의 상황적 환경을 이해하고 여러 차례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13장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3장을 꺼내면 12장은 매우 자연스럽게 1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3장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13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14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 특히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더 큰 은사,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12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더 큰 은사라고 부르며, 왜 그들에게 예언에 힘쓰라고 말합니까? 내 말은, 내 생각엔 그가 이 특정 선물을 없애고 다른 선물보다 더 나은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예언은 단순히 메시지, 즉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12-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사인 예언을 추구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특히 그가 그들에게 다른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말하려고 할 때. 당신이 성령을 더 많이 받았다는 표시로 방언이나 다른 은사를 어떻게 감히 높이 평가합니까? 이제 그는 말합니다. 아,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14장에서 받아들이는 더 큰 선물, 즉 예언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14장 전체는 이 예언의 은사, 즉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기 위해 그들에게 알기 쉬운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전체에 가장 유용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12장에서 그는 은사의 목적이 전체 교회의 건축, 즉 이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며 특히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므로 깨닫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바울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3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과 안위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언은 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방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모든 은사가 평등하다는 말을 모순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주로 한 사람, 즉 방언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은 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맥락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바울은 그들이 예언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고 즉각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알기 쉬운 말씀을 전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알기 쉽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아닙니다. 바울은 방언을 잘하고 방언을 하기를 원하지만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주로 예언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언, 즉 사람이 전달하고 주님께 받고 전달하는 이해 가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에 있어서 그것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데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혀가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내 말은 이것이 그의 수사법이고 그의 논증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방언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는 뭔가에 동의할 것이고, 예, 당신 말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네, 다 방언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교회로 모일 때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때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을 추구하십시오. 아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수업을 가르치기 전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응. 좋아요.

다시 한번 바울은 그것이 사용되려면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응.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좀 잘라 주시겠어요, 테드? 아니, 다시 한 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바울의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지, 아니면 교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지시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의.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한 은사가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신약성경이 완성되면서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으므로 방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1세기 동안의 것이었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흐름의 반대쪽 끝, 스펙트럼의 끝, 극단은 좀 더 카리스마 넘치는 움직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카리스마적 움직임을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방언이 여전히 카리스마를 갖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즉 방언은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나는 교회 전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올바르게 읽었다면 모든 사람이 영적이며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혼.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질문은 방언이 유효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이 단지 1세기에만 해당되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방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꽤 다양한 현상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당신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성취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는 그 중 많은 부분이 인식 가능한 언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언어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단정해서 이것이 방언이 무엇인지, 그것이 항상 어떤 모습인지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는지, 방언의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는 바로 그 것이 바울이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즉, 교회가 모일 때 강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본문에 관해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은 흥미롭게도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은사의 완전한 목록에 가까운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단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대표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덧붙이자면, 신약성서에는 영적인 은사에 관해 언급하는 곳이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은사가 언급되어 있는 12장에서는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시다. 그 중 일부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목록과 중복됩니다.

그 구절들에 언급된 다른 은사들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은사들의 완전한 목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성경 저자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바울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을 단순한 은사 목록으로 묶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는 것과는 반대로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의 예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여러분 중 일부가 이런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영적인 은사 목록 테스트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 그 중 두 명에게 영적으로 엘리트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성령이 어떤 하나의 은사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성령을 보여주며, 성령은 그들에게 샘플 목록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접근하는 방법,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 우리가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일부 은사가 발전할 수 있는지, 은사를 바꿀 수 있는지 등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Paul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해당 영역에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즉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은사나 지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적 경험을 홍보하거나 우리 자신의 영적, 사회적 지위를 강조할 여지가 없습니다.

Paul은 즉시 범위를 벗어났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위치한 13장의 유명한 사랑 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체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하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은사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 자랑하게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짜증내거나 분개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영적인 은사로 돌아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예언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방언은 그칠 것입니다. 지식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끝나리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답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왜 바울은 사랑에 관한 이 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잠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사랑을 이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로 꼽습니까? 내 말은, 그는 희망이 이제 희망, 믿음, 사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미래로 들어가게 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표현하는 희망입니까?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가 이 시점에서 사랑을 고립시킨다고 생각하는가? 좋아요, 그렇다면 사랑은 눈에 보이는 발현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그가 말하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고 눈에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작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물들과는 별개로요. 그래 좋아.

좋습니다. 저는 특정 답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관촬을 것 같아요. 또한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볼 때 왜 바울이 강조했는지 항상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믿으신다거나 하나님이 희망하고 기대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중 일부는 사랑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반영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은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알았어, 응, 그렇지.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참여하게 되므로 더 이상 천국을 바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천국에 가면 사랑을 멈출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13장이 왜 여기에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특히 12장 이후로 13장이 없으면 12장에서 바로 14장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13장이 여기에 있습니까? 내 말은, 우리 모두는 그것이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상황적 환경과 정박지에서 벗어나 결혼식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적 맥락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13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13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므로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시점에서 그는 사랑의 미덕을 찬양하는 이런 고상한 산문이나 거의 시적인 유형의 텍스트를 시작합니까? 왜 여기에? 여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하신다면 그것을 현실로 되돌리려고 노력하세요.

좋아요. 그리고 현실로 되돌아가면 고린도인들처럼 이러한 은사를 그들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그의 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은사를 영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당신이 13장에 설명된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과 완전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종류를 예시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지위와 은사,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은사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다면, 그 진정한 사랑은 13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관련된 은사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건축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13장을 꺼내서 사랑에 관한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왜 여기에 그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지, 영적 엘리트 지위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참은. 12~14일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찾는 방법이나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질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언급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다른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 실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행해진 관습이었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일이 다른 종교에서 일어났다가 기독교에 들어왔고 여전히 예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종교에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응.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빌려왔다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종교가 노래와 찬양을 강조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반드시 그것을 빌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유사한 영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로부터도 방언을 빌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 영역이었을 뿐입니다. 고린도인 중 일부가 엘리트 지위와 관련된 황홀한 언어 유형이 있는 종교에 속해 있었다면 비슷한 현상이 있는 기독교로 그것을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언어를 빌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인들 중 일부는 아마도 특정 종교적 상황에서 배웠을 수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교 상황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데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건 좋은 지적이야.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 내세운 것들은 실제 영적인 은사보다는 그들이 가져온 영적인 은사에 대한 교만과 오만함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 더 강조되는 점은 다른 종교에도 '나는 이 종교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하고자 하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는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네 말이 맞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비난하는 것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고린도 문화, 즉 정치적 문화, 역사적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약학자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사도행전 18장에서 읽을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한 후, 세속적인 고린도, 그들의 종교, 정치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들이 이제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이 모든 문제, 특히 종교와 고린도 생활의 다른 분야 내에서 지위와 계급, 사회적 구별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합니다. 좋은.

15장. 15장은 부활이라는 주제에 관해 바울이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다룬 가장 길고 가장 지속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전해 내려온 초기 사도들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폴은 나에게 전해진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통을 전수하는 기술적인 언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예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일반적인 부활, 즉 일반적인 육체적 부활을 이해하는 타당성에 대해 더 자세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15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 바울을 변호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마지막에 육체적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즉 우리의 부활도 주장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까? 내 말은, 바울이 그냥 멈춘 걸까요? 글썄요,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물이나 물건에 대해 다소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장은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제 바울이 육체적 부활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까? 추측이 있나요? 회복적이고 영적인 육체 사상의 플라톤적 영향과 같은 변형을 가리킬 수 있고 그것을 육체 전투로 복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괜찮은. 그래서 아마도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런 종류의 플라톤적 사고가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특징들과 결합하여 이제는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고, 이런 종류의 플라톤적 부활 때문에 적절한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형.

진정한 현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맞다. 또한 15장에서는 14장까지 실제로 중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흥미롭게도 부활에 관한 15장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게 쓴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이것에 대하여, 이제는 우상에게 바친 식물에 대하여, 이제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들었느니라.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선포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변호나 변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 12장과 14장의 뒤를 잇는 데에도 반영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 중 일부가 영적으로 도착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엘리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육체적인 부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특정 은사가 영적으로 엘리트 상태임을 입증한다는 생각은 따라서 육체적 부활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가 영적으로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지금이나 미래에 영적인 부활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다루면서 플라톤적 유형의 이원론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논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할 일은 15장에서 할 일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기독교를 폐기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없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것이다. 고린도인들은 육체적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두 번째는 마지막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물리쳐야 할 원수는 죽음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려면 영적 부활뿐 아니라 육체적 부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이 때때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와 우리의 미래 희망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미래의 희망에 물질적이고 땅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해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 나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프를 연주하며 구름 위를 떠다니는 어떤 천국의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말은, 얼마나 지루한가.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지루한 존재인가.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 1장의 인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적인 땅에서 물리적인 존재로 살며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가 육체를 벗어나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이고 플라톤적인 유형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 중 일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나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적 부활이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우리가 천국이 아닌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5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육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모든 영향을 제거한 매우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육체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때로는 책을 하나의 주제로 요약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 하나 이상의 주제를 가질 수 없거나 저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일을 달성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나는 주요 주제가 교회의 일치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의 많은 문제들은 불일치, 사회 계급에 대한 생각,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 교회의 순수함이 주된 주제가 아닐까 하는 확신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의 모든 문제는 세속적인 고린도 문화의 가치관, 태도, 도덕성이 교회에 침투하도록 허용한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교회를 성전과 고린도에 있는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비유하는 일관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의 일관된 반응은 교회가 순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속 문화 속에서도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하나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교 문화 가운데 있는 교회의 순수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는 그것이 교회에 침투하도록 허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시험 때문에 뵙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다른 수업이에요.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인 고린도전서와 영적 은사에 관한 강의 17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